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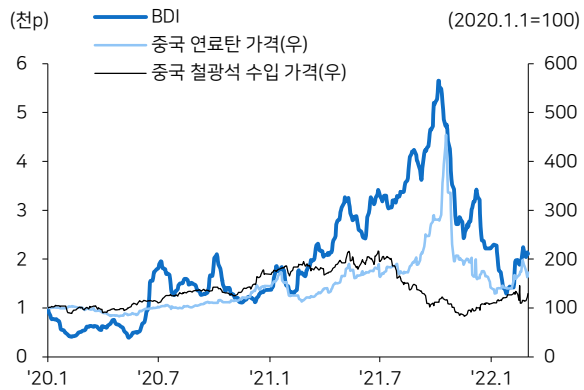
2022. 3. 7 (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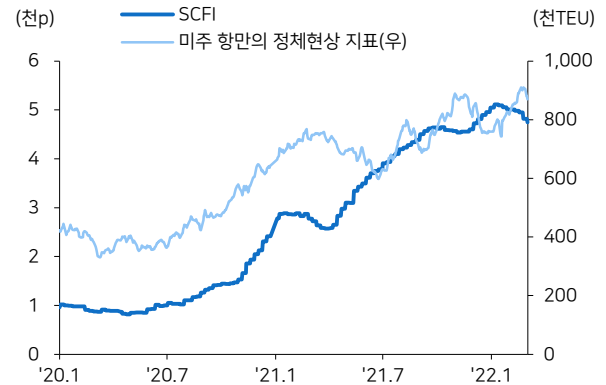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2,148.0p(+4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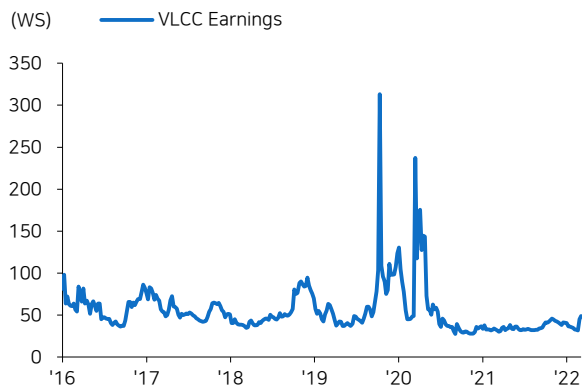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4,747.0(-71.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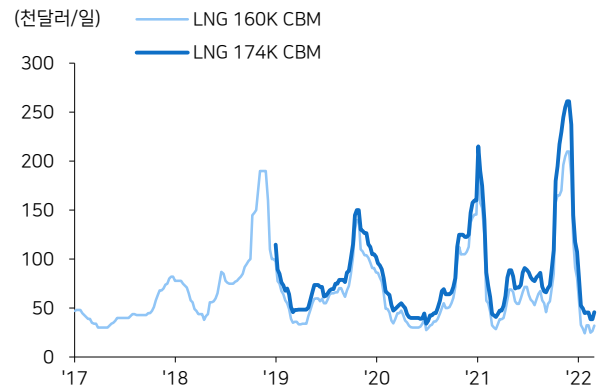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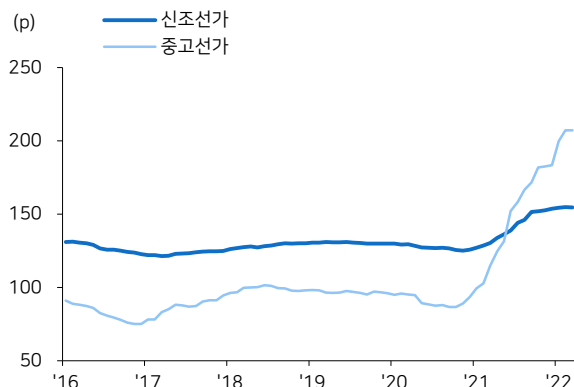
48.8(+3.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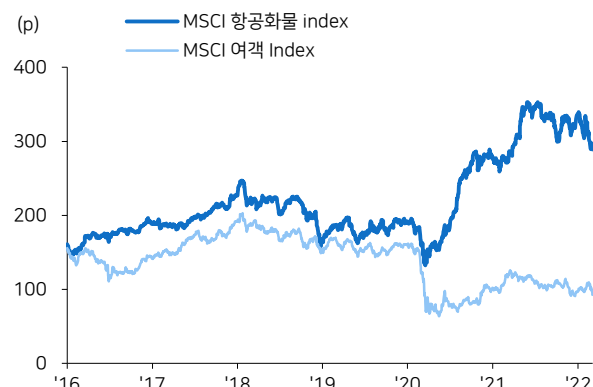
## LNG Spot 운임

32.0p(+5.5p WoW)  
45.8p(+7.0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4p(+0.7p WoW)  
207.2p(+0.2p WoW)

## 항공시장 지표

288.9p(-6.9p DoD)  
92.8p(-3.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MSC taps yards for 24 LNG dual-fuelled container ships worth \$2.8bn

MSC가 7,000~8,000TEU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한국 및 중국 조선소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됨. 28억달러 규모 18+6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보도됨. MSC는 2025년말 이전에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짐. 업계 관련자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한 군데서 전부 건조할 수 있는 단일 조선소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 Uncertainty stalks LNG carrier markets as Russia-Ukraine conflict intensifies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며 LNG선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의 침공으로 LNG 현물 운임이 소폭 상승함. 한 선주에 따르면 용선 수요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함. LNG시장에서는 Yamal LNG 프로젝트의 LNG 수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한 LNG 분석가는 Yamal, Sakhalin II, 소규모 Vystotck 터미널 등에서는 수출 화물이 정상적으로 선적되고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 Ukraine invasion ignites Europe's hunt for coal, drawing in bulke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럽 석탄 바이어들이 석탄 사냥에 나서게 함. 남아프리카 석탄, 인도네시아 석탄이 유럽으로 수입되고 있음. 최근 최소 3척의 캄사르막스 벌크선이 남아프리카에서 석탄을 싣고 유럽으로 항함. Eagle bulk는 수송거리가 늘어나며 운임 수입이 상당히 좋다고 언급함. (Tradewinds)

## 독일, 첫 LNG 터미널 건설 추진...한국 수주 증가 기대감 ↑

독일 정부가 5일 에너지기업 알베에그룹, 네덜란드 가스니와 브룬스뷔텔 LNG터미널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독일은 지난 2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개의 LNG터미널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현재 독일에는 LNG터미널이 한곳도 없다고 보도됨. 브룬스뷔텔 외에 빌헬름스하펜에도 신규 LNG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인데, 해당 터미널은 이르면 3년 내 가동될 수 있다고 전해짐. (조선Biz)

## 코로나 폭증에도 예약 2배 ↑ ...항공사 증편 초읽기

COVID-19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항공사들이 항공편 추가 운항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도됨. 3일 기준 2022년 1분기 하나투어를 통해 사이판 여행을 예약한 인원이 1,200명을 초과, 전분기대비 118% 증가했다고 알려짐.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현재 탑승률은 66%이지만,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좌석점유율을 기존대비 70%로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평균 탑승률은 94%에 달한다고 설명함. (에어진)

## 이달 중순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도 격리 면제될 듯

방역당국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단, 출국일 기준 48시간 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한국일보)